

1

ㅎ ㄴ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한글특별위원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제1차 한글위원회 회의기록

주요안건 한글위원회의 운영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한글 연구와 디자인 관련 문제

때 2012년 3월 22일 목 오후 4시 ~ 6시

곳 해인기획(서울시 중구 필동) 회의실

참석회원 8인: 강은선, 노은유, 류명식, 서승연, 이병욱, 이용제, 임진욱, 한재준

초대손님 1인: 홍동식

진행협조 및 외부참관: 7인

한재준\_

공지 메일을 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한글위원회는 우리학회의 한글 연구와 관련활동 강화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는 한글위원회가 한글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과 사업을 차곡차곡 실천해갈 수 있도록, 제



역량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세종임금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한글을 지키고 빛내기 위해 기여해 오신 여러 선배님들의 성공과 업적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지혜까지, 그 내용을 교훈 삼아 뜻을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위원회이니 특별한 안건은 없고, 한글위원회 운영과 추진방향을 함께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형식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야할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류명식위원장님부터 좌석 순서대로 한글위원회와 관련된 소감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명식\_

한글타이포그래피학회에서 한글특위를 하겠다고 해서 참 기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세대는 일제 강점기라 한글을 자유롭게 쓰기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시각분야 전공을 하면서 한글이 중요한 도구이다 보니까 글꼴의 다양성과 쓰임의 불편함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몇몇 뜻있는 분들이 한글의 표정을 다양하게 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문광부정책으로 서예가 글씨가 폰트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폰트라기보다는 캘리그래피에 가깝습니다. 일중서체를 예로 들자면 서예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일본, 중국, 한국을 봐도 서체의 즐기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모리사와에서 출시되는 폰트들은 표정이



다양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디자인을 하다보면 활용할 만한 폰트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요즘 각광받는 캘리그래퍼들도 있지만, 기본 글꼴에 관한 것이 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최정호씨 관련 논문도 있지만(노은유씨 박사논문), 기본글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글이 최초로 쓰여졌던 계  
공서체인데 그런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잘 발굴해서 한글특위가 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진욱\_

한글진흥의 주제를 갖고 모인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는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에 있다 보니  
한글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것과 산업적인 것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학문적으로 발전하려면 산업이 변화해야 하고 산업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  
국문학을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연구는 되지만  
학교에서 학문의 위상보다는 산업크기나 발전정도에  
따라 실용화가 가능성이 가늠되는 것 같습니다. 한글뿐  
아니라 디자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글이라는 디자인도  
참여하는 인력, 산업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발전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한글이 발전하려면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취지와 맞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계 및 학교에서 디자인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연\_

저는 한글위원회 운영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쯤...제가 평택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학기에 독일에서 타이포그래피  
교육자이자 디자이너였던 톨란드  
지그리트 교수님께서 교환 교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에밀루터의  
제자 중 한분이셨으며, 당시 70  
세가 넘으셨으나, 한국에서도 따로  
여러 번 전시를 주관하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정통  
스위스타이포그래피 학파이신  
지그리트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궁금증으로 한 학기 수업을



몇몇 교수님과 참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듣고  
굉장한 자극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분이신 지그리트  
교수님께서도 말으신 타이포그래피 수업에서 직접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사진 및 역사적인 자료를 직접 찾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기에  
한글에 대한 설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해 타이포그래피 관련 강의를 하고 있지만, 로마자에 대한 역사나  
배경에 비하면 한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된 기초적인 자료나 인식이 부족하고 저 또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과 노력하시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타이포그래피 교육자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며, 따라서 한글특위에서  
가능하다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인 계보 및 기초 연구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것이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은유\_

최근에 최정호 선생님에 관련한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모으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한글에 대한 기초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기본 문헌이 많이 부족했고, 특히 원도 활자시대의 자료는 유실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초자료가 없으니 글을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논문 자료 리서치를 위해서 일본까지 방문해서 모리사와사에 가서 최정호  
선생님 원도를 찾았습니다. 원도 열람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모리사와

측에서 망설이더니 결국 공개를 해 주었는데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 힘을 좀  
더 실어서 자료를 수집과 연구를 지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욱 선생님께서 산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글꼴 산업 쪽의 동향을 살펴보면  
류양희씨, 안삼열씨 등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글꼴  
회사 쪽도 기업서체 개발의 영향으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업서체, 지방자치단체 서체 등의  
작업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사 서체(네이버)



가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매해 새로운 버전과 새로운 디자인의 글꼴을  
선보이고 있지요.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글꼴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가장 큰 걱정은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인데,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교육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모임이던지 어떤 모임을 가도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모임으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한글위원회에서 교육관련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거의 교육자이시고



하니, 교육내용을 개발한다던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흩어진 자료 모아서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던지. 지향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공유 및 방법론을 공개하는 것을 한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면 후배 선생님들이나 다른 지역의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연대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진 제도의 문제에 관한 것인데 최근저작권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나왔는데 여전히 글자꼴자체를 저작권법으로 인정하는 문구는 못 찾아봤습니다. 여전히 프로그래밍 법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꼴의 저작권법 개정운동을 착수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 위원회에서 착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기업을 만나서 폰트개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폰트회사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의뢰하는 사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디자이너를 하는 사람도 그의 이해에 있어 폭이나 수준에 있어 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대내적인 부분을 개선할 필요를 느낍니다. 제도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할 필요를 느낍니다. 임진욱선생님이 쓰셨던 '산업'이라는 표현보다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장이 전통적인, 고전적인 인쇄와 책이라는 매체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책과 같은 인쇄매체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폰트가 오픈마켓이라던지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킨토시기반과 윈도우 기반의 코드문제도 다르고, 컴퓨터와 모바일상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표준위원회에 물어보니 황당한 대답이었는데, 활동하는 연구원분이 표준을 안 만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말인 즉, 연구비가 있어야 연구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진 한글위원회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진 폰트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표준위원회 활동하시는 교수님 말씀을 빌자면 돈안되는 연구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타이포그래피학회 이름으로 표준안 연구를 하고 표준위원회에 제안을 하는 게 어떨지. 이것도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술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자디자이너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진 불만을 갖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서울시서체가 만들어지고 류명식선생님께서 조선일보 오피니언 글을 쓰셨지요? 아마 제 기억으로 월간디자이너에 썼던 글과 류명식선생님이 쓰셨던 글이 유일했던 것 같은데, 과연 타이포그래피 교육하시는 수없이 많은 분들 중에 활자를 비평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비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평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기 어려운 문화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라면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비평문화가 가능하려면 기초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타이포그래피학회라면 한글위원회라면 건강한 비평문화를 의식적으로 해야 인접분야와 행정에서 즉 산업분야에서 인정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부비판도 없고, 내부비판이 있으면 숨기 바쁜 이런 게 허약한 체질로 자꾸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부비판을 통해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내성을 키워 논지를 만들고 불리한 쟁점이 있으면 열심히 논쟁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알고 대기업에서 타이포그래피분야에서 요구를 했을 때 온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업시장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맡기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한글위원회에서는 큰 한글디자이너나 한글 타이포그래피 문화를 키우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가진단을 해서 비평하고, 인정하고, 논쟁해서 문화를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예전에 타이포그래피 사전진행시 날말로 인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의 소모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예는 분명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가 많아야 상대방이 어떤 논거를 갖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와 그 논거가 타당하고 불확실하고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전한 논쟁문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정례적인 상설의 자리가 필요하고 날말하나를 놓고 논쟁하고 토론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이포그래피학회 회장님과 임원진들께서 한글위원회를 가동하라고 하신 것 같고, 저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목표는 실행하는 것이라는 것, 말로만 하는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실행이 중요하고 실행의 으뜸은 교육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작권법, 표준화, 비평문화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공감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부경대학교 홍동식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학회 회원은 아니시지만, 최근에 발간하신 책을 보고, 제가 특별히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홍동식\_

먼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을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 앞서 이용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타이포그래피 교육방법론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디자인방법론으로 가르치는 게 잘 맞는데, 헬베티카, 보도니 순서로 넘어갑니다. 저도 알파벳을 갖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한글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부터 나옵니다. 고딕과 명조를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 즉, 역사와 표현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교육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할 분도 없고, 관련 학회도 없고 해서 사실 한 교수님이 연락을 해 주셨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윤디자인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제가 윤영기 소장님의 먼 친척이 되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한글을 학문적으로는 접근하기 싫고 한글 11,172자를 눈 빠지게 만드는데, 내가 만들 글자들이 애들 과자봉지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게 현실이고 문화적인 소산이다. 라고 십여 년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더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입을 수 있는 한글인데, 예쁘고 아름답게만 꾸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캘리그래피, 감성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떤 입장을 피력하기보다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늘 이용제 선생님 잡지에서 글도 읽고, 대학원생들과 이야기 하더라도 정녕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파벳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알파벳은 26자이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한글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본에 나고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쇼군(일본의 장군)의 이미지가 강한데, 비엔날레에서 봤던 나고야 서체에서 쇼군의 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글서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역도 대한민국의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교육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접근방식과 피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비평이야기도 했는데 비평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진욱\_

홍 선생님도 처음 뵈고 한데, 각 분야에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글에 국한되지 않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를 만났는데, 기업체에 있는 친구입니다. 경영진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워선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들었는데, 디자인전담부서도 만들고, 분위기가 어떻느냐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디자인은 외국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글도 외국에서 할 수 있으면 외국에서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나라 디자인 자체가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디자인 전반적인 부분이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디자인역사와 비교해도 국내 디자인 성숙도에서 뒤쳐질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인식자체가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나 문화 자체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에서 부유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연구, 투자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우리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해외 시장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디자인의 신뢰감,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타이포그래피학회 한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디자인 문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 한글이라는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 디자인과 접목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성숙되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는 행위들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재준\_ 임진욱 위원님의 두 번째 말씀은 디자인의 정체성과 주체성 등에 대한 보다 큰 시각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한글과 한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류명식\_ 디자인이라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기업에서도 중요하고, 정치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만. 한글을 세종이 만드셨는데, 한글을 기호로 볼 때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기록매체로서의 가치가 또 있고요. 디자이너들은 조형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저작권법을 이야기 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로고타입은 작품성격이 강한데 디지털폰트는 제품 성격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체연합에서 Y회사(윤디자인)의 서체를 브랜드에 응용할 때와 책표지에 응용할 때,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니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웃라인 서체를 사용할 때에는 디자이너들이 변형해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공공차원에서 개발된 서체는 나누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시각장애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소액을 받고 다운로드 하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아까 산업과 연계해서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 일반 공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는 제품을 한번 사면 어떻게 활용하던지 법적이 제제가 없습니다. 물컵을 사서 꽃병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CI 연장선상에서 염두에 두고 서체를 개발하는 업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생각 있는 사람들,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의심, 마케팅이 주도해서 차별화하는 활동들이 지속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디자이너들이 고객의 요구에 순응해서 물건을 잘 팔리게 하고, 다르게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하고 하는데 기여했지만, 남는 건 무엇이나? 지금 지구오염의 주범으로 디자이너들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면 차별되어야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장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책임하게 같이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공서체에서는 조형성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이 단순히 조형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과학적인 실험을 무수히 거쳐서 아라비아 숫자를 개발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과학적인 실험이라던 지 과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적인 데에 치우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꼴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든지 하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데 디자이너가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서비스디자인이 화두인데 전력 소비율에 따라 그린카드와 레드카드를 부여하는 게 있던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로 전력소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시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요즘에는 디자인자체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창의산업이라던지 디자인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이너들이 가치에 중심을 둔다던지 외연을 넓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재\_ 이 자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재준\_ 네, 이 자리는 한글위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고, 작은 것이라도 실행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맞게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회원은 누구나 이 위원회에



위원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운영위원과 실행위원의 역할을 분담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재준\_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류명식 위원님과 노은유 위원님의 견해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지자체에서 전용폰트를 개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나 조형 등 감성 위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바로잡거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류명식\_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체를 만들 때, Y사(윤디자인), S사(산돌커뮤니케이션) 회사 둘이 경쟁을 붙였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 회사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일이니 만큼 희생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고, 한 회사는 그런 조건은 못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나, 행정적인 문제와 얽혀있습니다. 그 일처리에 있어서 느긋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디자인 진흥원이 47년 된 산업디자인 전시회를 여는데 홍보 디자인 예산 책정된 예를 보면, 총 예산 2억 1천만원에 디자인비 250만원이었습니다. 디자인이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한 사람이 디자이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디자인 진흥원에서도 디자인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슬픈 일입니다.

한재준\_ 바로 그런 일들을 학회가 앞장서서 바로 세우고, 정상화하도록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용제\_ 한교수님이 말씀하신 실천방안에 대하여, 비평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글위원회에서 남들이 다 꺼리는 일이지만 비평지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이 직업상 그나마 제일 자유로우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약소하게나마 한 달에 한 번씩 디자인사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명씩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과 행정문제도 비평을 해서 수면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사명감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싫어하는데, 그건 기업의 오너이기에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류명식\_ 아까 대안을 왜 얘기 안하느냐 했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티보칼맨, 윌리엄모리스가 시도를 한 외국의 예가 있기는 하나 시도에 그쳤습니다. 사회는 디자이너의 힘만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항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기는 역부족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제\_ 교수의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교수의 역할도 있지만, 대학원생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저작권문제는 실제로는 대학원생의 삶의 터전인데, 요즘 분위기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에 디자이너들이 있을 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문을 쓰거나 글을 써서, 능동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재준\_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실천방안 중 하나가 건전한 비평, 곧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학회 차원의 공식화된 지속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의 특성상 개인의 이름으로 드러내기 불편한 것은 위원회가 거들고, 학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은유\_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글꼴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소프트웨어 버전 업 해주는 것처럼 글꼴도 버전 업을 꾸준히 하는 문화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책을 만들 때 기호활자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글꼴회사가 지속해서 글꼴의 버전 업을 해주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제\_ 노선생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적어뒀던 것 이야기를 안 한 게 생각이 났는데, 제작 도구에 대하여, cs한글판도 일본 소프트웨어 번역 한 것이라 명령들이 이상한 게 가끔씩 있던데, 폰트툴, 편집툴, 어떤 제작도구가 있어야 잘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자인도 편해질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재준\_ 이용제 위원님은 폰트개발 도구의 문제를 함께 제안해 주셨고, 노은유 위원님은 지속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논의의 방향이 비평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건전한 비평이 풍요로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우리의 비평문화가 아직은 초보수준인 점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 위원회나 학회가 앞장서지는 시도하지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소한 공공성이 강조된 지자체 한글꼴 등에 관해서는 학회 차원의 객관화된 평가기준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식\_ 문제를 도출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업적인 논리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업의 소비구조상 그렇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연예인 글꼴을 서체회사에서 팔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 회사에서도 이제 본문용 서체를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 것입니다.

이용제\_ 예전에는 칭찬과 질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칭찬을 하기로 하면 외압이 들어올 위험도 있습니다. 칭찬과 질책을 동시에 하는 것은 효과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임진욱\_ 디자인의 가치를 정하는 건 클라이언트가 정하기도 하지만, 디자이너 스스로 만드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서체회사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체 뿐 아니라 디자인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억짜리 CI가 있는데 500만원에 해주겠다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클라이언트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다 디자이너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판할 사람은 디자이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봤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병 고친다고 의사가 아니지만 디자이너는 모두 다 디자이너라고 나서기 때문에 디자이너 스스로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비평을 해도 공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명식\_ 좀 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연\_ 한글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얼마 전 좌담회도 진행되었고, 학회 이사회의 때에도 한글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말씀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공감했던 부분은 한글에 대하여 어떤 연구가 얼마만큼 연구가 되어져 있고, 어떤 연구가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글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연구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가시화시킨다면 한글위원회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욱 수월하리라 생각되고, 학회 회원들의 역할 분담도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한재준\_ 오늘 녹취된 것을 풀고 정리하면 다음 위원회엔 진일보된 내용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동식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동식\_ 지자체서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중심 이야기로만 흘러가는 듯합니다. 지역 폰트가 있는 곳은 서울, 제주도, 양평, 순천, 부산은 사실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을 도시경관기획회에 갖다



줬더니 그 다음날 디자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지역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책은 비판하기위한 책은 아니고, 글꼴을 통해 부산의 문화와 행정과 교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이 글꼴은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공짜라서 제한 없이 마구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한글디자인학회에서 보는 논문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비평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봐도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입니다. 교수가

지시를 하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 물꼬를 터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부산의 전통시장에 대한 것인데, 이 책을 통해서도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학문은 분명히 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소소한 것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보터보트 타는 법제가 보기에는 부산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시면 갈매기 밥 할 때의 폰트라던지, 타이포그래피와 글꼴에 대한 저변문화도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엘리트 디자이너도 당연히 필요하고, 인쇄소에 디자이너를 한명도 없는데 그런 일반인들도 아우를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욱\_ 저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타이포그래피 수업시 한글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좀 더 한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보다 쉬운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분들중에는 한글폰트를 외뢰하는 클라이언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글폰트를 의뢰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의견이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전에 이런자리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평, 비평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비평과 비평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을 시기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기에 때문인데, 가끔 대학생들의 생각에 교수님들이 개인의 생각을 다르다가 아닌 틀렸다고 말씀을 하실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기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은선\_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 강의시, 한글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글의 장점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초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재준\_ 계획대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매달 중순 금요일 오후에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회의 장소는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한글학회가 있는 한글회관이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또는 관련 기업 회의실 등을 빌려서 돌아다니며 진행하는 것이 한글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는 의미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학회 특별위원회는 독립 운영을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작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번 2만원씩 회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제\_ 위원 및 실행위원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한재준\_ 일을 맡아 봉사해 주시는 것이니,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서 주시는 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회장님의 승인을 거친 후 위원 구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제\_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평지 위원을 맡겠습니다.

한재준\_ 자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하신 모든 분이 동의해 주셨으니, 이용제 위원님을 추진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류명식\_ 1446년 ~ 2012년까지의 연표를 놓고 앞뒤 채우는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식이 깊은 분이 하나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한재준\_

네, 한글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도 누군가가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위원회의 총무역할을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모임이라, 가까운 제자들이 도와주었습니다마는, 회계와 회의 준비 등의 일도, 회원님 중에서 맡아주시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당분간은 서울여대 조형연구소에 근무하는 구슬기 연구원이 자청해 주었으니 제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부탁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서도 우리 회원만 참석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외부 손님을 초청하는 것도 좋겠고, 다음 회의부터는 위원님들 주변에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참관을 허락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한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끝-





---

우330-7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00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전공 427호

전화 010.0047.6131 전송 041.550.5189 이메일 [typo@koreantypography.org](mailto:typo@koreantypography.org)

Room 427, Design B/D, #300 Anseo-dong,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330-720, Korea

T. 010.0047.6131 F.041.550.5189 E. [typo@koreantypography.org](mailto:typo@koreantypography.org)

[www.koreantypography.org](http://www.koreantypography.org)